

Ⅲ. 기와이기¹⁾와 지붕의 형태

1. 기와이기

지붕은 서까래를 엮음으로써 그 골격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과정은 목수의 일에서 와공의 일로 넘어간다.

서까래와 서까래의 사이는 대략 1자가 보통인데 이 사이를 먼저 덮어야 한다. 서까래 사이를 덮는 방법은 서까래 개판을 이용하거나, 산자엮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까래 개판은 판자의 폭을 서까래 간격과 비슷하게 하되 약간 좁게 하고 서까래 방향으로 덮어 나간다. 산자엮기는 거름대나 수수깡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장작처럼 켜 나무를 새끼줄로 엮어서 덮어 나간다. 이 때 암키와의 크기와 간격, 곡선의 굽은 정도에 따라 평고대 위에 있는 연합도 깎는다. 연합을 잘못 깎으면 기왓골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붕 면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목수가 아닌 와공이 연을 깎는다.

산자를 엮은 위에 흙을 넣고 그 위에 나무 조각이나 껌질로 적심을 채운다. 적심은 지붕의 골격에 따라 깊게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얇게 채워야 되는 곳도 있다. 적심은 서까래와는 직각이 되도록 놓아야 하며 흘러내리거나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도록 다발로 묶거나 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적심을 잘 채우면 지붕을 가볍고, 튼튼하게 해주며, 보온 단열의 효과까지 얻는다.

이렇게 적심을 채운 위에는 보토를 깔게 된다. 보토는 마사토에 생석회를 섞어서 지붕 면의 바탕을 이루도록 한다.

보토로서 지붕의 곡선을 잡아가면서 기와를 올리는데, 기와는 먼저 연합을 맞추어 바닥 기와인 암키와부터 깔아 나간다. 처마 끝부분부터 깔아 올라가게 된다. 암키와로 바닥을 깔아 나갈 때 2장 내지 3장씩 겹쳐 잇게 된다.

수키와는 암키와끼리 서로 맞닿은 부분을 덮어 주듯이 처마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덮는다. 수키와는 겹쳐 이지 않고 언강을 만들어 뒤쪽의 수키와 앞머리를 올려놓도록 한다. 수키와를 놓을 때는 기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홍두깨흙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막새와 평기와가 모두 이어지면 마루 기와를 쌓게 된다. 마루 기와는 각 마루에 따라 암마룻장 기와의 단수가 결정되는데, 제일 높게 하는 곳이 용마루, 다음으로 내림마루, 추녀마루 순으로 한다.

1) 장기인, 「조선기와 잇기」 『개와』 (한국건축대계 VI), 보성문화사, 1991, 137-197면

황의수, 『조선기와』, 대원사, 1989, 38-47면 등을 참조 바람

사진82. 김홍도의 기와이기 풍속도



사진82. 김홍도의 기와이기 풍속도

마루기와 쌓기에는 맨 아래에 착고 또는 착고와 부고를 이중으로 놓고 그 위에 암마룻장 기와를 놓은 다음 맨 위에 숫마룻장 기와를 1장 얹어 덮는다. 각 마루 끝에는 망와를 놓으며 망와 대신에 용두, 취두를 올려 놓기도 한다.

사진83. 기와이기



사진83. 기와이기

(138-139 쪽)

2. 지붕의 형태

지붕의 형태는 간단한 구조의 박공지붕 [맞배지붕] 에서 사면 흐름 치마가 있는 모임 지붕 [우진각 지붕] 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모임 지붕은 지붕이 단순하고 측면 지붕 면이 크게 되어 외관상의 조화를 얻기 어려우므로 모임 지붕의 위쪽에 합각벽을 대는 합각지붕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로 건물의 평면·기능·구조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지붕이 고안되기도 하였고, 지붕 면에 곡선을 두고 조화된 지붕 형태가 나타난다. 이들 지붕재를 이용한 지붕 면을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곧은 지붕이 현재에는 대부분이지만 재래의 기와 지붕에서는 중간이 휘어내린 옥은 지붕으로 하였다. 이와 반대로 휘어오른 부른 지붕은 가마·정자 등에 쓰였으며 또한 연·불감·석등 등에 응용되었다.

사진84 기와지붕의 형태



사진84. 기와 지붕의 형태

우리의 기와는 근본적으로 암수의 구분을 두는데서 서양의 것과 차이가 있다. 암수는 바로 음양(陰陽)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음과 양으로 대비시키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생각은 역(易)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상(易思想)은 뒤에 나타나는 풍수지리와 함께 건축물의 조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사진85. 기와지붕의 곡선

—지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선들을 편안한 곡면과 곡선으로 이어져 원숙함의 극치를 이룬다.



사진85. 기와지붕의 곡선

-지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선들을 편안한 곡면과 곡선으로 이어져 원숙함의 극치를 이룬다.

기와를 이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 좋은 곡면과 곡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지붕의 곡선이 한국 건축의 가장 독특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이나 뒷동산을 배경으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용마루의 곡선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뛰어난 역할을 한다. 기와 지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선들은 조화를 이룸으로써 보는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해준 물론 주위의 산세와도 잘 어울리고 있다.